



세계 첫 드론축구월드컵, 힘차게 막 올라

전주 드론축구, 하늘 열고 세계 있다

드론축구 중추 도시 '전주'를 전 세계에 알리고 드론축구로 세계 연결을 시도하는 세계 최초 드론축구월드컵이 마침내 힘차게 막을 올렸다.

전주시는 2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FIDA World Cup Jeonju 2025)'의 개막식과 함께 4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는 드론축구 민관 조 작위위원장인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 세계 33개국에서 선수단 및 방문객, 시민, 자원봉사자, 서포터즈 등 1만 5,000여명이 참가해 개막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개막식은 드론축구를 통해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도약한다는 의미가 담긴 '드론축구, 하늘을 열고 세계를 잇다'는 슬로건 아래 시작됐다. 사전공연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국악현악단의 합창을 시작으로 전주대학교 태권도시범단 '씨울아비'가 기백 넘치는 무대로 관객의 환호를 이끌었다. 이어 150대의 군집 드론에어쇼가 전주의 밤하늘을 수놓았다.

방문객들의 찬사와 환호가 이어진 군집 드론에어쇼에는 전주를 찾은 전 세계 드론축구인 및 국내외 방문객을 환영하는 의미를 담아 드론축구월드컵 트로피와 드론축구볼을 그려냈다. 사전공연에 이어 전북자치도 무형유산인 왕기석 명창의 애국가 제창, 취타대의 전통 군악 퍼레이드, 기수대 행렬이 이어져 개막식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28일까지 나흘간 대장정

세계 33개국 선수단 출전

군집 드론에어쇼 등 통해

미래 드론스포츠 새 지평

특히 호주 선수단의 입장을 시작으로 아시아권(15개국) 판아메리카(7개국), 유럽(7개국), 아프리카(3개국), 오세아니아(1개국) 등 세계 33개국 선수단이 개막식장을 메우며 관중들로부터 환호와 함성을 이끌었다.

개막식 관람객들도 응원하는 팀이나 국가를 소개할 때마다 응원을 담은 함성으로 선수단을 맞이했다. 이어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우범기 전주시장의 개회사, 노상흠 국제드론축구연맹(FIDA) 회장의 환영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테너 3인의 월드컵 주제가 공연과 대회가 개양됐다.

대회 선수단과 심판의 함찬 선서에 이어 대회 하이라이트인 내빈들의 드론볼 시축과 성화 점화가 이루어지며 이번 대회의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록됐다.

공식행사 이후에는 K-POP 대표 가수인 라이즈(RIIZE), 아홉(AHOF), 아이치린(ICHILLIN')과 인기 트로트 가수 김희재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관람객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었다.

이와 관련, 드론축구월드컵은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28일까지 4일간 세계 최초 드론축구 전용경기장인 '전주 국제드론스포츠센터'와 월드컵경기장



2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FIDA World Cup Jeonju 2025)'의 개막식이 열린 가운데, 우리나라 선수단이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광장에 마련된 드론축구 특설경기장에서 우승컵을 향해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된다. 드론축구월드컵은 세계 23개국이 참가하는 드론축구(Class40, Class20) 경기뿐만 아니라 드론축구와 장애물 레이싱을 결합한 크래싱(Cracing) 대회와 각국 국가대표 선수가 참여하여 최고의 드론 조종 실력을 겨루는 개인전인 슈퍼파일럿 선발대회 등 드론축구볼을 활용한 신규 시범 종목도 함께 선보인다.

또 경기장 안팎에서는 드론산업 국

제 심포지엄, 2025 Buy전주 GOGO페스티벌, 한가위 맞이 함께 더 큰 장터를 비롯해 드론 체험프로그램, 전주 문화예술포럼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우범기 대회 조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드론과 스포츠가 만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순간을 전주에서 맞이하게 되어 가슴 벅차다"며 "전통문화의 도시이자 드론산업이 세계적 허브로 성장하는 전주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가 선수들에게는 성취와 추억을, 관람

객에게는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정태 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드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전주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주가 드론산업과 스포츠,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들과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글로벌 금융 리더와 금융혁신 미래 모색

‘초연결시대’ 담론의 장

‘제6회 지니포럼’ 개최

AI 기반 투자 전략 등 논의

인공지능(AI) 시대 금융혁신의 미래를 모색하는 글로벌 담론의 장, '제6회 지니포럼(GENIE Forum)'이 2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행사는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이 공동 주최했으며, '초연결시대, 금융·AI 융합이 바꾸는 미래(The Nexus of AI & Finance)'를 주제로 26일까지 열리고 있다.

올해 포럼은 개막식과 국제금융컨퍼런스를 비롯해 금융혁신세미나, 청년·도민 참여 프로그램 등 세대별 맞춤형 연계행사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개막 기조연설은 블랙록의 제럴드 가비 매니징 디렉터가 맡아 'AI 활용 자산운용과 알파수의 창출'을 주제로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어 열린 전 북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는 한덕희 킴잇 대표가 좌장을 맡고, 알리안츠·웰링턴·피델리티 등 글로벌 금융사 전문가들이 AI 기반 투자 전략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DAF 금융혁신세미나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주제로 카카오프라임, 토스인사이트, NICE신용평가, 한국디지털자산수탁 등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디지털 금융시장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개막식에서는 '지니어워즈(GENIE Awards)' 시상식이 열려, 지역 국가산단에 바이오연료 등 생산시설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산업기반 조성에 기여한 (주)DS단석의 한승욱 대표이사 회장이 수상했다. <관련기사 15면>

이번 포럼은 전문가 행사뿐만 아니라 청년과 도민이 함께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26일에는 중·고등학생이 참여하는 'GENIE STAR 청소년 금융 골든벨'을 연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과 금융생태계 육성 전략, 데이터센터 투자 사례 등을 주제로 한 '전북 금융산업 발전 세미나'가 진행된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포럼을 발판 삼아 전북자치도를 자산운용 중심 금융특화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민호 기자

국회의원들과 전북교육 발전 '의기투합'

전북교육청, 전북 국회의원과 '제2회 교육정책 간담회'

새정부 교육정책 기조 맞춰 대책 모색... 국회 차원 지원 약속

학력인구 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이 주요 안건에 올라

중앙정부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요 안건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 농어촌지역 소규

모 학교 맞춤형 지원 방안, 전북특별법 교육 관련 후속조치, 학습부진 학생 지원 강화 및 기초학력 보장 정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국회 차원에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전북 국회의원 모두가 '교육위원'이라는 마음으로

힘을 보태겠다"며 "정차권이 전북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전북 교육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며 "정치권과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모델을 만들어가자"며 협력을 요청했다. /장은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2025 익산

시민화합

대축전

25. 10. 01. 수
~ 10. 31. 금

익산시정 Iksan City Hall

이리시 익산군 통합 30주년

위대한 도시 GREAT IKSAN 30th